

<숙향전>의 환상성의 창출양상과 의미

김 문 희*

〈목 차〉

- I. 머리말
- II. <숙향전>의 환상성의 창출양상
 - 1. 인물의 인식 과정에 의한 환상성
 - 2.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구성에 의한 환상성
 - 3. 첨가적 삽화 구성에 의한 환상성
- III. <숙향전>의 환상성의 의미
- IV. 맺음말

【요 약】

본고는 고전소설 중에서 가장 환상적이라고 할 만한 <숙향전>을 대상으로 환상성이 어떻게 창출되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전소설의 환상성은 독자가 텍스트에 서술된 초현실적 사건인 대상세계를 멀게 느끼거나 가깝게 느끼는 심리적 원근감에서 생성되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숙향전>의 인물과 서술자는 눈 앞에 벌어지는 초현실적인 사건을 시종일관 독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려는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숙향전>의 환상성은 주로 독자가 대상세계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최소화하고 초현실적 원리를 수용하여 대상세계에 동화시키

* 서강대 강사

려는 서술의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서술의도는 인물의 인식 과정의 측면과 사건의 층위에서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구성과 첨가적 삽화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인물의 인식 과정에서 강조되는 인물의 반응은 괴이함이다. 인물이 괴이하다고 느끼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상세계를 거리화하는 과정이며 얼마 후 인물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인물의 인식 과정은 독자의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 곧 인물이 대상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동안에 독자는 이미 대상세계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고 가상적 환상세계에 진입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숙향전>의 환상성은 이처럼 인물이 느끼는 괴이함과 이를 수용하는 인물의 인식 과정에 독자가 동조함으로써 창출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숙향전>의 서사 구성적 측면에서 빈발하는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구성은 독자와 대상세계의 거리감을 줄임으로써 독자의 환상성을 창출한다. 독자는 이러한 반복적 사건에서 <숙향전> 전체의 서사 규약을 이해하고 서사 내의 가상 세계에 쉽게 참여하게 된다. 플롯 차원에서 독자의 심리적 원근을 조절하기 위해 마련된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구성은 가상적 세계에 독자를 초대하는 강력한 견인력이 되며 여기서 <숙향전>의 환상성은 활성화된다.

세 번째로 첨가적 삽화 구성에서 창출되는 환상성은 대상세계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 거리감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인물은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낮은 세계를 목격하게 된다. 서술자 역시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는 이선의 여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이때 독자는 이선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편입하여 이러한 장면을 관찰자적 태도로 대상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이선의 우주 여행과 신선계의 여행의 문턱에서 독자는 경이로움을 느끼며 이제 여행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첨가적 삽화 구성은 <숙향전>의 암시와 실현의 구성과는 달리 독자의 대상세계에 대한 심리적 동화(同化)만을 유도하는 것이 아

나라 대상세계에 대한 일정한 거리감에서 나타나는 경이로움을 창출한다.

더불어 <숙향전>의 환상성을 창출하는 서술방식은 <숙향전>이 창작된 17세기를 전후하여 향유된 많은 고전소설에서 그 영향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숙향전>의 환상성은 앞 시대의 서사문학과 고전소설에서 그 연원을 이어왔고 <숙향전> 이후의 고전소설에 영향을 주며, 고전소설의 상상력의 색인을 더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I. 머리말

고전소설의 환상성은 대부분의 작품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격이다. 주지하듯이 고전소설에는 현실계와 초현실계가 근접해 있어서 두 세계가 쉽게 교유한다. 초현실적 존재와의 만남, 이계 여행, 초현실적 예언과 그 실현, 재생, 변신과 같은 많은 모티프들이 결합함으로써 고전소설의 환상성이 창출된다.

<숙향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연구 성과가 집적되어 있다. <숙향전>의 그간의 연구는 작품의 이본이나 작품의 성격이나 세계관과 구조 등 작품 전반에 대한 연구¹⁾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이 연

1) <숙향전>에 대한 연구는 김태준의 논의에서부터 시작되며, 숙향전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학예사, 1939), 이위웅, 「숙향전 연구」(『부산대 개교20주년 기념논문집』, 1966), 장홍재, 「숙향전에 나타난 거북=용의 보은 사상」(『국어국문학』55-57, 1972), 구충희, 「숙향전 이본고」(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3), 김응환, 「숙향전의 도교사상적 고찰」(한양대 석사논문, 1983), 나도창, 「숙향전 연구」(숭실대 석사논문, 1984), 서연희, 「숙향전의 서사구조와 그 의미」(『서강어문』5, 1986), 양혜란, 「숙향전에 나타난 서사기법으로서의 시간 문제」(『우리어문학연구』, 3, 1991), 황폐강, 「숙향전의 구

구들에서 <숙향전>의 소설사적 의의는 충분히 평가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했듯이 <숙향전>은 초현실적 세계의 힘이 어느 고전소설보다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숙향전>은 신성성²⁾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고전소설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숙향전>은 소설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인물과 사건, 배경의 모든 부분이 초현실적 요소로 짜여져 있는 전형적인 환상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은 대부분 천상계와 관련되어 있고, 사건은 탐색 서사의 반복, 고난과 구원의 반복, 보은과 보상의 반복으로 짜여져 있고, 이 사건들은 초현실적이다. 배경으로 설정된 지상계와 천상계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숙향전>의 구조나 의미, 세계관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충분하게 논의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숙향전>의 ‘환상성’의 내막은 만족할 만한 정도로 논의되지 못한 것 같다. 본고는 고전소설 중에서 가장 환

조와 동양적 예정론」(『고전소설의 이해』, 문학과 비평사, 1991), 조용호,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고전문학연구』7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고려대 박사논문, 1994), 신재홍, 「숙향전의 미적 특질」(『다곡이수봉박사정년기념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윤경희, 「이대본 숙향전에 나타난 조명론적 세계관」(『한국고전연구』창간호, 한국고전학회, 1995), 성현경, 「숙향전론」(『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5), 차충환, 『숙향전연구』(월인, 1999)

- 2) 이상택 교수는 고대소설의 신성성과 세속성을 논의하면서 고전소설 중에서 <숙향전>은 신성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택 교수에 따르면 <숙향전>의 신성성은 다음과 같이 구현되고 있다.

『숙향전』의 출생담은 신선모티프, 마고할미의 청초화 변신 모티프, 화덕진군의 보호는 이인 도술 모티프, 거북이 김전을 구하는 보은 모티프, 후토부인의 예언은 정수, 언참의 모티프, 지상→천상→지상 여행은 재행 모티브로 나타나기 때문에 <숙향전>은 신성문학의 한 전형적인 예로서 거론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과정 시론」,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3, 75~77쪽.

상적이라고 할 만한 <숙향전>을 대상으로 환상성이 어떻게 창출되고 있으며, 환상성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논의는 <숙향전>의 환상성이 창출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숙향전>이 ‘초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는 결과적인 측면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환상성이 창출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숙향전>이 담지하고 있는 환상성의 의미도 명료하게 드러나고 나아가 고전소설의 환상성도 보다 구체적이고도 풍부하게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숙향전>의 대상 텍스트는 기존 이본 연구에서 비교적 선본(善本)으로 평가된 이대본을 교주한 교주본³⁾으로 한다.

II. <숙향전>의 환상성의 창출양상

고전소설의 환상성은 텍스트 내의 인물이나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독자가 대상세계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반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환상성은 독자가 텍스트에 서술된 초현실적 사건인 대상세계를 멀게 느끼거나 가깝게 느끼는 심리적 원근감에서 생성되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전소설의 환상성의 내질은 동질적이지만 않다.

예컨대, 애정 전기소설에서처럼 인물과 서술자는 각기 다른 이중적인 서술태도를 통해서 독자의 대상세계에 대한 거리화를 촉발하여 독자가 대상세계를 멀게 느낌으로써 기이성(奇異性)을 창출하기도 한다.

3) 이화여대 도서관 소장의 필사본 <숙향전>은 이상구나 성현경, 차충환에 의해 원본에 가까운 선본(善本)으로 평가되었다. 이화여대 도서관 소장의 필사본 <숙향전>은 김진영과 차충환이 현대어로 교주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숙향전』(김진영·차충환 교주, 민속원, 2001)을 텍스트로 삼았다. 앞으로 본고에서 인용하는 작품의 쪽수는 이 책에 의거하기로 한다.

그런가 하면 몽유록계 전기소설에서처럼 초현실적 공간을 전경화하는 서사에서는 인물과 서술자 모두 유사하게 관찰자적 태도를 보이며 독자의 대상세계에 대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며, 독자의 경이성(驚異性)을 창출하기도 한다. 또한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초현실적인 예언이 현실화되는 장면에서는 인물과 서술자의 대상세계에 대한 외경적 태도가 독자의 신이성(神異性)을 창출한다. 영웅소설과 같은 초현실적 능력을 전경화하는 서사에서 인물과 서술자는 대상세계를 자신의 욕망대로 변형하는 우위적 태도를 통해 초현실적 세계를 허구적 흥미소로 서술함으로써 독자의 유희성을 창출⁴⁾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전소설의 환상성의 스펙트럼은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초현실적인 사건으로 점철되어 있는 <숙향전>은 독자의 대상세계에 대한 심리적 원근감을 어떻게 유도하며, 어떤 서술기제에 의해 환상성이 창출되는가?

다른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숙향전>의 인물이나 서술자는 독자의 대상세계에 대한 친숙함이나 거리감을 유도하는 매개자가 된다. 특히 <숙향전>의 인물과 서술자는 눈 앞에 벌어지는 초현실적인 사건을 시종일관 독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려는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숙향전>의 환상성은 주로 독자가 대상세계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최소화하여 대상세계에 동화시키려는 서술의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서술의도는 인물의 인식과정을 강조하는 측면과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구성과 첨가적 삽화 구성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줄고, 『고전소설의 환상성의 양상과 인식적 기반』, 『고소설연구』19, 한국고소설연구학회, 2005, 9~23쪽.

1. 인물의 인식 과정에 의한 환상성

<숙향전>에서 초현실적 사건에 대한 인물의 공통적 반응은 괴이함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인물은 이것을 괴이하고 이상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숙향전>의 인물들은 계속해서 괴이함을 지니고 대상 세계를 거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숙향과 이선의 태몽이나, 미래사를 예언하는 꿈의 경우에 우리는 인물의 이러한 반응을 발견할 수 있다.

(ㄱ) 김전 夫妻 망월루에 올라 달을 구경하더니, 문득 하늘에서 흰꽃 한 가지 장씨 앞에 떨어지거늘, 자세히 보니 梨花도 아니요, 梅花도 아니로되 맑은 향내 진동하거늘, 장씨 크게 괴이하여 김전을 청하여 보일 제, 홀연 광풍이 일어나 그 꽃이 산산이 흩어지는지라. <...> 고운 계집아이 둘이 玉燈에 불을 들고 들어와 김전에게 일러 왈 “이제 부인이 오시니 그대 바빠 나와 집안을 掃灑하라.”하고 장씨 방으로 들어오거늘, 김전이 어찌할 줄 모르고 밖에 나와 집 내외를 掃灑하더니 기이한 향내 진동하거늘, 김전이 크게 의심하여 가만히 창틈으로 엿보니 장씨 벌써 아기를 낳은지라. 그 계집이 항물에 아기를 씻겨 부인 곁에 누이고 밖으로 나가거늘, 김전이 가는 곳을 보려 하고 따라나가니 벌써 간데 없더라. 김전이 크게 괴이하여 바빠 방에 들어가 보니 부인이 기절하였거늘, 급히 깨우니 장씨 자다가 깨는 듯 하더라. 김전 夫妻 아기를 보니 딸이라, 꽃 같은 얼굴이 비범하고 맑은 향내 방안에 진동하거늘, 김전 夫妻 아기를 보니 딸이라. 김전 夫妻 크게 기꺼 아기 이름을 숙향이라 하고 자는 月宮仙이라 하다.⁵⁾

(ㄴ) 그날 아침에 예 없던 오색구름이 집을 두르고 기이한 향내 진동하거늘, 부인이 괴이히 여겨 집안을 掃灑하더니 낮이 盡하여 홀연 기

5) <숙향전>, 55~57쪽.

운이 좋지 못하거늘 침석에 누웠더니, 이윽하여 창 밖에 아름다운 소리 나고 사양머리 한 선녀 둘이 들어오며 왈, “때 늦어가오니 잠깐 침석에 누우소서.” 하며 옷을 벗기거늘, 부인인 편히 누우며 아기를 낳으니 옥동자라.⁶⁾

(ㄱ)은 숙향의 탄생과 관련된 장씨와 김전의 반응이다. 기이한 향내가 나는 꽃이 장씨에게 떨어지고, 선녀가 나타나 아이의 출생을 알려주자 장씨와 김전은 괴이함을 느낀다. 그러나 장씨와 김전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허탄한 것이거나 별 의미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인물들이다. 장씨는 기이한 꽃이 자신에게 떨어지자 그것을 남편에게 보이고, 김전은 선녀가 말하는 대로 아이를 맞을 준비를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이름을 숙향이라 하고, 자는 월궁선이라고 하여 하늘의 계시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

(ㄴ)은 이선의 출생 장면이다. 이선의 출생 장면은 앞서 보았던 숙향의 출생 장면과 유사하다. 아이를 낳기 전에 선녀가 현시하는 것이나 왕씨가 집안을 청소하는 것은 숙향이 태어날 때 김전이 했던 행위와 같다. 이선의 어머니인 왕씨는 오색구름을 보고 기이한 향내를 맡고는 괴이하게 느끼지만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인물이다. 왕씨는 선녀의 예언이 있기 전에 아이가 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대비해서 청소를 하고 이선을 출산하게 된다.

이처럼 기이한 꿈을 꾸고 이 꿈을 괴이하게 여기며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인물의 반응은 왕씨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선의 아버지인 이상서가 아들의 탄생과 관련된 꿈을 꾸고 괴이하게 느끼며 왕씨가 아들을 낳았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일에서나, 임금도 꿈을 통해 이선의 탄생을 알게 되고 귀한 인물이 될 것

6) <숙향전>, 147~148쪽.

이라고 짐작하는 장면에서도 이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진이 이상서의 명령으로 자신의 딸인 줄 모르고 숙향을 치죄하자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자 김진은 숙향이 죄가 없음을 알게 되는 장면⁷⁾이나 숙향이 김전에 의해 위태롭게 되자 장씨 부인의 꿈에 숙향이 나타나고 장씨 부인은 꿈을 괴이하게 여기며 숙향을 죽이지 말라고 김전에게 애원하는 장면⁸⁾에서 우리는 초현실적 사건을 받아들이는 인물의 유사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숙향전>의 인물들은 초현실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대부분 괴이함을 느끼게 된다. 이 괴이함은 현실 법칙과 같지 않다는 이질감에서 촉발되고 인물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갈등하는 심리적 유보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숙향전>의 인물들은 이러한 갈등 과정을 거쳐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대상세계에 반응하게 된다. 이것은 <숙향전>에서 무수하게 펼쳐져 있는 기이한 사건에 대한 인물의 인식 과정이 정형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상세계에 대한 괴이함과 이를 수용하는 인물의 인식 과정은 독자의 환상성을 유도하는 서술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이 괴이하다고 느끼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상세계를 거리화하는 과정이며 얼마 후 인물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인물의 인식 과정은 독자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곧 인물이 대상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동안에 독자는 이미 대상세계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고 가상적 환상세계에 진입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숙향전>의 환상성은 이처럼 인물이 느끼는 괴이함

7) 나장이 눈을 부릅뜨고 한 매에 죽이려 하되, 팔이 무거워 중히 치지 못하니, 員이 생각하되, ‘이는 받드시 애매한 사람을 杖下에 죽이려 하니 하물이 도우시는가?’ 의심하여 치지 말고 놓아 보내고자 하나 (<숙향전> , 212~213쪽)

8) 장씨왈 “내 꿈이 괴이한지라. 내일 내 친히 보고자 하오니, 아직 죽이지 말고 내일 內聽 坐起하고 올리라 하소서”(<숙향전>, 213~215쪽)

과 이를 수용하는 인물의 인식 과정에 독자가 동조함으로써 창출되는 것이다. 독자의 몰입은 대상세계를 바라보며 괴이하다고 느끼는 인물의 거리화와 뒤이은 친숙화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2.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구성에 의한 환상성

<숙향전>의 환상성을 창출하는 또 하나의 서술패턴은 구성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숙향전>에는 초현실적 사건의 예언이나 고지(告知)가 실현화되는 경우와 까치나 청삼살개가 미래에 일어날 불길한 일을 암시하고 이것이 실현되는 경우와 초현실적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것은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암시와 실현의 반복은 서사 구성적 측면에서 독자의 환상성을 유도하는 패턴이다.

먼저 <숙향전>의 예언이나 고지가 구조적 차원에서 암시되거나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이것이 서사 전반에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상자왕균이 숙향의 미래사를 예언하는 것과 숙향이 부모와 헤어져 헤매다 신선계로 들어가 후토부인을 만나서 자신의 과거사와 미래사를 듣게 되는 것, 숙향이 사향의 모함으로 장승상의 집에서 나와 물 속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할 때, 숙향을 구해준 용녀와 선녀가 숙향의 과거사와 미래사를 말하는 것 등은 숙향이 앞으로 겪게 되는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다.

(ㄷ) 사람의 八字는 알지 못하나니, 내 비록 재주 없사오나 아기 四柱와 相을 보오니, 오세에 부모를 이별하고 정처없이 다니다가 십오세 당하여 다섯 번 厄을 지내고, 십칠세에 부인에 封해지고, 이십에 부모를 만나 태평영화로 지내다가 칠십이 되오면 도로 천상으로 올라갈 팔자이다.⁹⁾

9) <숙향전>, 59쪽.

왕균의 예언은 숙향의 전체적인 삶의 궤적을 언급한 것이다. 김전 부부는 왕균의 말을 크게 의심하나 왕균의 예언은 <숙향전> 전체의 사건의 흐름을 알려주는 최초의 암시가 되는 것이다. 왕균의 예언을 듣고 김전 부부는 반신반의하나 독자는 이 암시를 통해 숙향의 삶이 왕균의 예언처럼 진행될 것임을 알게 된다. 곧 <숙향전>의 독자는 숙향의 삶이 왕균의 예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독자가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고난으로 점철된 숙향의 삶을 미리 말하는 언술은 텍스트 곳곳에 나타난다. 이것은 후토부인¹⁰⁾과 선녀¹¹⁾의 발화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숙향이 고난을 당하거나 새로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암시가 드러나고 이것이 실현되면서 독자는 <숙향전>의 암시와 실현의 구성을 암묵적으로 습득하게 되고 앞으로 진행될 숙향의 삶의 과정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게 된다. 숙향이 표진강에 빠져도 죽지 않을 것이며, 노전(蘆田)의 화재에서도 살아남을 것임을 예견하게 되고, 초현실적 존재에 의해 숙향이 구원되는 과정이 반복되어도 더 이상 기이하게 느끼지 않고 텍스트에 가상적으로 그려진 환상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독자는 암시와 실현의 유형화된 <숙향전>의 서사 구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초현실적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10) 선녀 아무리 죽고자 하여도 천상에서 죄를 중히 얻어 계시매, 인간에 내려와 다섯 죽을 厄을 지낸 후에야 천상죄를 면하고 좋은 시절을 보실 것이니, 그리 아옵소서. 저즘께 도적을 만나 죽을 뻔하여 한 번 厄을 당하시고, 이제 명사계를 다더가오니 두 번 厄을 지냈사오니, 이 앞에 또 세 번 厄이 있사오니 조심하소서.(<숙향전>, 75쪽.)

11) 부인이 천상에 득죄하을 제, 다섯 번 액을 보게 한지라. 세 번 액을 지냈사오니 이 앞에 두 번 액이 있사오니 조심하옵소서” <…> “蘆田에 가 화재를 보시고 낙양 옥중에 가 受刑할 일을 보시고 반년 空房을 지낸 후에야, 太乙仙君을 만나 영화를 보시고 인하여 부모를 만나 보시리다.”(<숙향전>, 109쪽.)

이다. 이러한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서사 구성은 독자가 대상세계를 이질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대상세계를 동화(同化)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유형화된 서술패턴이다.

<숙향전>의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서사 구성은 까치나 청삽살개가 미래에 일어날 불길한 일을 암시하고 이러한 일이 실현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숙향이 사향의 모함을 받기 전에 까치가 불길하게 울고, 숙향은 까치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 숙향이 이상서에게 고난을 받기 전에도 까치가 울고 숙향은 자신이 화를 당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청삽살개가 도적이 올 것을 미리 예시하는 것이나, 숙향이 희망을 잃고 죽으려고 하자 청삽살개가 이선을 만날 것임을 알려주는 것 모두 <숙향전>의 암시와 실현의 서사 구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물(異物)이 인간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분명히 기이한 일이다. 그러나 독자는 <숙향전>에서 반복되는 구성을 통해 기이한 일을 더 이상 기이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적으로 대상세계를 가깝게 느끼고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숙향전>의 환상성은 독자의 심리적 거리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독자의 심리적 동화 작용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암시와 실현의 방식이 전체적인 서사 구성의 차원에서 <숙향전>의 환상성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것은 인물의 발화나 이물의 행위로 암시되는 미래사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의 발미가 되는 것이다.

숙향의 아버지 김전은 반하수에서 거북이를 구해주게 되는데, 이 사건은 <숙향전> 전체 서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김전의 선행은 백운교를 지나다 큰 물에 휩쓸려 죽을 위기에 처한 김전을 거북이가 구해주는 계기가 된다. 또한 거북이가 김전에게 주는 두 개의 구슬은 가난한 김전이 혼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숙향과 김전의 고난을 돕는 기물(奇物)이 되며, 후에 부모가 숙향을 알아보는 징표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김전의 선행은 숙향과 이선의 고

난 상황에서 이들이 위기를 모면하게 한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의 빌미가 되는 경우는 숙향과 이선의 만남의 계기가 되는 꿈이다.

(ㄷ) 상제 즉시 복두칠성을 명하여 壽限 칠십을 정하고 두 아들과 한 딸이며 복록을 갖춰 점지하시되, 두 아들은 정승이 되게 하고 딸은 황후 되게 한 후에, 素娥를 명하사 蟠桃 두 개와 桂花 한 가지를 太乙을 주라 하시거늘, 素娥 그 모인 중에 부끄러워 몸을 일으킬 제, 숙향이 낀 옥지환의 진주 떨어지거늘, 숙향이 줍고자 하더니, 그 선관이 벌써 손에 쥐었거늘, 숙향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殿을 오르고자 하더니, 할미 술을 팔고 오며 이르되, “봄날 이 곧 하니 무슨 잠을 그토록자는고?”하며 깨우거늘 남가일몽이라.¹²⁾

(ㄹ) 이선이 伏地謝恩하니, 上帝 시녀를 명하여 蟠桃 두 개와 桂花 한 가지로 선을 주시거늘, 선이 鞠躬하여 받으며 그 선녀를 눈주어 보니, 선녀 부끄러워 급히 돌아설 제, 손에 끼었던 옥지환의 진주 빠져 이선의 앞에 떨어지거늘, 선이 가만히 한 손으로 줍더니, 대성 사 중들이 齋式을 드리려고 石鐘을 울리거늘, 그 소리에 깨니 瑤池 景概 눈에 암암하고 풍류 소리 귀에 쟁쟁하며 손에 과연 진주 하나를 쥐었거늘¹³⁾

(ㄷ)은 숙향의 시각에서 숙향이 꿈에 청조를 따라 천상계로 가서 태을선관을 만나자 옥지환의 진주를 떨어뜨리는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ㄹ)은 이선의 시각에서 이선이 꿈에 선녀에게 반도와 계화를 받다가 선녀의 옥지환의 진주를 줍는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숙향의 옥지환의 진주는 현실세계에서 숙향과 이선이 인연을 맺게 되는 빌미가 된다.

(ㄷ)과 (ㄹ)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꿈 속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을 하나의 장면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두 인물의 각기 다른 시각

12) <숙향전>, 139쪽.

13) <숙향전>, 157쪽.

에서 옥지환의 진주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줍는 장면을 설정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동일한 사건을 각기 다른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의 문면에 중첩시키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이 장면을 의미 있게 기억하여 속향과 이선이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필연성을 미리부터 짐작하게 한다. 초현실계와 현실계가 연결되고 서로 통하고 있다는 인식은 <속향전>에서 인물이나 서술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구성에 의해 독자 또한 이러한 서사 상황을 이해하고 여기에 동조할 수 있도록 유도되는 것이다. 초현실적 사건으로 어떤 의미가 암시될 때 그것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이어서 인물과 독자 모두 일정한 심리적 거리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 사건으로 실현되면 독자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심리적 거리감을 무너뜨리고 환상의 세계에 동화되어 간다.

<속향전>의 서사 구성적 측면에서 빈발하는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구성은 독자와 대상세계의 거리감을 상쇄시킴으로써 독자의 환상성을 창출한다. 이러한 서술기제는 텍스트를 대하는 독자의 상상력을 더욱 증폭시키고, 독자는 초현실적 사건을 인과적이고 유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한다. 독자는 이러한 반복적 사건에서 <속향전> 전체의 서사 규약을 이해하고 서사 내의 가상 세계에 쉽게 참여하게 된다. 플롯 차원에서 독자의 심리적 원근을 조절하기 위해 마련된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구성은 가상적 세계에 독자를 초대하는 강력한 견인력이 되며 여기서 <속향전>의 환상성은 활성화된다.

3. 첨가적 삽화 구성에 의한 환상성

<속향전>의 환상성을 창출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첨가적 삽화 구성이다. 눈 앞에 펼쳐지는 초현실적 세계가 주도적인 스토리 라인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지는 않지만 주도적인 스토리 라인에 첨가되는 삽화를 통해 환상성이 창출되는 경우가 있

다. 이때의 환상성은 앞의 두 경우와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닌다.

<숙향전>에서 첨가적 삽화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숙향의 고행담과 숙향과 이선의 결연담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이선의 구약 여행담이다. 이선의 구약 여행담은 <숙향전>의 고행담과 결연담과는 밀접한 유기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선과 매향의 천정 인연을 실현시키기 위한 동기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서사적 긴장은 숙향의 고행담과 숙향과 이선의 결연담에서 정점을 이루었고 이선의 구약 여행은 <숙향전>에서 첨가적 삽화의 성격을 지닌다. 황태후의 득병으로 촉발된 이선의 구약 여행은 이선이 전생을 기억하고 매향과의 전생 인연을 알게 되면 마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태산의 벽이룡이나 봉래산의 개인초, 서해용왕의 개안주를 찾아오는 사명을 띠고 떠나는 이선의 구약 여행에는 부가적인 삽화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H) 한 곳에 다다르니, 그 나라는 回回國이라. 사람이 바로 다니지 못하여 돌며 다니더라. 지킨 왕은 經星이란 별일네라. 용자 물가에 배를 매고 公文을 成貼하러 가니, 왕이 문왈, “가는 행차 太乙星이니까?” 답왈, “그러하여이다.” 즉시 공문을 성첩하여 주거늘, 또한 나라에 다다르니 好蜜國이라. 그 나라는 밥을 먹지 아니하고 꿀만 먹고, 왕은 尾星이란 별일네라. 용자는 공문을 드리니, 왕 왈, “그대 太乙을 데리고 가느냐? 이 앞은 험하고 遲慢하니 가장 조심하여 가라.” <…> 또 한나라에 다다르니, 그 나라는 烏衣國이라. 그 나라 사람은 곡식을 먹지 아니하고 차만 먹으니 몸이 가늘고 날래더라. 왕은 主星이니, 행인이 하나도 무사히 지나지 못하는지라. <…> 星王 왈 “봉래산은 명산이라, 신선도 上帝의 명 없으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거든, 태을선이 비록 천상 사람이나 득죄하고 인간에 내려왔으니, 이제는 속객이라.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리라.”¹⁴⁾

14) <숙향전>, 343~347쪽.

이선은 용궁에 들어가 남해 용왕을 만나고 용왕의 아들과 함께 구약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나라에서 기이한 일들을 목격한다. 사람이 바로 다니지 못하고 돌며 다닌다는 회회국(回回國)에서 경성(經星)왕을 만나 용왕이 준 공문을 보이고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꿀만 먹고 사는 나라인 호밀국(好蜜國)에 가서 미성(尾星)인 왕에게 용왕의 공문을 보이고 그 관문을 통과한다. 또한 의관문물이 중국과 같은 유구국(琉球國)에서 규성(奎星)왕을 만나고, 곡식은 먹지 않고 차만 마시며 사는 오의국(烏衣國)의 주성(主星)왕을 만나 용왕의 공문을 보여주고 봉래산으로 향한다.

이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상세계는 하나같이 익숙하지 않은 이계 공간이다. 서술자의 서술 태도 역시 이러한 낯선 이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질적인 대상세계를 중첩적으로 서술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선의 봉래산으로 향하는 여정은 황도(黃道)를 중심으로 나눈 천구(天球)의 스물 여덟 자리를 여행하는 우주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천체를 돌며 우주 여행을 하고 상상의 나라에서 별을 의인화한 왕을 만나고 봉래산으로 들어간다는 상상력은 지금까지 <숙향전>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과는 사뭇 다르다. 주 스토리 라인이 대상세계에 대한 심리적 동일화를 통해 환상성이 창출되었다면 첨가적 삽화 구성에서 창출되는 환상성은 대상세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인물은 이계여행을 떠나면서 낯선 세계를 목격하게 된다. 서술자 역시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는 이선의 여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이때 독자는 이선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편입하여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선의 이계 여행에서 목격되는 세계는 현실계와는 다른 생경한 세계로 인물과 서술자는 이러한 낯섬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의 이질감이 강조됨으로써 독자는 이 세계 속에 쉽게 몰입하지 못하고 관찰자적 태도로 대상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이선의 우주 여행과 신선계 여행의 문턱에서 독자는 경이로움을 느끼며 이선의 이계여행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이로움은 이계의

문턱넘기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선은 여러 별을 지나고 신선계로 들어가 많은 선관을 만나게 된다. 이 선관들은 하나같이 이선에게 인간세계에 나가 술을 마시자고 하며, 이선이 봉래산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고 곤욕을 주지 않게 한다. 이러한 선관들과 이선의 만남은 역시 <숙향전>의 주도적인 스토리와는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첨가적 삽화라고 할 수 있다. 이선의 구약 이야기는 <숙향전>에서 따로 떼어내어 독립된 이야기를 구성해도 될 정도로 분량이 많고 전반부의 세계와 다소 거리가 있다.

이선이 만나는 선관은 이적선(李謫仙), 두목지, 안기생, 여동빈 등인데 이들은 도교와 관련된 인물이거나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이다.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을 이선이 신선계에서 만난다는 삽화는 표면적으로 황태후의 병을 고치기 위한 이선의 유교적 충효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유로운 인간의 내면적 지향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선이 구약 여행에서 만나는 신선과 마고할미는 이선에게 술을 먹자고 하거나 바둑을 두자고 하며, 인세의 공명과 영귀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곧 이것은 현실계의 공적인 임무를 버리고 환상적 세계에서 인간의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환상의 유희적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실계가 인간의 의식세계라면 초현실계로 표상되는 신선계는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의 세계를 잠시 잊어버리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유희적인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고가 <숙향전>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으며, 주도적인 스토리와의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숙향전>의 유희적인 성격은 환상적 이야기가 보여줄 수 있는 한 가능성만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환상적 이야기가 보여줄 수 있는 유희적 성격은 주도적 스토리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첨가적 삽화의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첨가적 삽화는 <숙향전>의 암시와 실현의 구성과는 달리 대

상세계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 동화(同化)작용에서가 아니라 대상세계에 대한 일정한 거리감에서 촉발되는 경이로움을 창출하기도 한다. 또한 인간의 사적 욕망을 보여주는 환상성의 유희적인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Ⅲ. <숙향전>의 환상성의 의미

고전소설의 환상성은 독자가 초현실적 사건에 대해 멀게 느끼거나 가깝게 느끼는 심리적 원근감에서 생성되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숙향전>에 교직되어 있는 사건은 현실적인 시각으로는 낯설고 공감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숙향전>의 서술기제는 이 낯설음을 점차로 약화시키고 독자가 텍스트 내에 가상적으로 설정된 초현실계의 원리와 의도를 이해하며 텍스트의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곧 인물의 인식 과정이나 사건 구성적 측면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질적인 세계를 개연성 있고 익숙한 세계인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환상성을 창출하는 것이다. 독자는 이러한 <숙향전>의 서술양상을 통해 긴장과 이완의 과정을 반복하며 텍스트가 끝날 때까지 환상의 세계에 익숙해지게 된다.

특히 인물의 인식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구성은 초현실적인 대상세계의 이질감을 독자가 낯선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대상세계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화(同化)적 서술방식이다. 익숙하지 않은 세계를 익숙한 것처럼 서술하고, 더 나아가 독자가 서사 세계를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때문에 초현실계에 대해 독자가 느끼는 기이함과 경이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숙향전>의 서술방식은 독자가 초현실계를 친숙하게 느끼며 텍스트를 익숙하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작자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비해 주도적 스토리와 크게 관련 없는 첨가적인 삽화를 구성함으로써 <숙향전> 전반부와 다른 환상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때는 독자가 예측할 수 있는 익숙한 방식으로 대상세계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계 여행에 독자가 동참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선의 선약 여행에서 독자가 느끼는 환상성은 낯선 세계에 대해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고 그 세계의 모습을 관찰하다 경이로움을 느끼는 지점에서 창출된다. 애초에 독자는 인물보다 먼저 이계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목격하고 관찰하는 것을 바라보는 간접 경험자의 입장에서 있다. 이 때문에 독자는 인물이나 서술자보다 좀더 관찰자적이고 탐색자적인 태도로 대상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상상 속에 있던 별나라를 거쳐 신선계로 가고 이적선이나 두목지와 같은 현실계의 인간이 신선이 되고 이러한 신선을 만나는 경험은 현실과 초현실을 뒤섞어 놓는 경이로운 경험인 것이다. 독자가 현실의 문턱을 넘어서 인물과 함께 이계 여행에 동참할 때라야 독자는 경이로움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이로움 속에서 독자도 인물과 더불어 본격적인 이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이로움은 <숙향전>의 환상성을 창출하는 주도적인 방식은 아니다. 다만 주도적인 스토리에 부가되는 첨가적 삽화 형태는 자칫 익숙하고 상투적인 서술방식에 식상하기 쉬운 독자의 독서과정에 새로움을 부여하는 정도로 나타날 뿐이다.

이러한 <숙향전>의 환상성을 창출하는 양상은 <숙향전>이 창작된 17세기를 전후하여 향유된 많은 고전소설에서 그 영향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숙향전>과 같이 전면적으로 작품 속에 초현실적 세계가 개입되지는 않지만 많은 고전소설에는 주인공의 출생과 관련한 태몽이나 아이의 고귀함을 알리는 꿈이 널리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는 선녀가 출현하여 아이의 전생이나 미래사를 고지한다. 이때 부모는 대부분 선녀의 고지를 괴이하게 생각하나 곧 그 꿈의 의미를 되새기며 수용하게

된다. 영웅소설이나 초기 가문소설이나 많은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의 출생담은 주로 이러한 양상이 유형화되고 패턴화되어 있다.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구성 역시 고전소설에서 선인들이 고난을 받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유형적으로 나타난다. 대개가 꿈을 통해 미래사가 알려지게 된다. <유충렬전>의 유충렬 모자의 고난상황과 <사씨남정기>의 사씨나 유연수의 고난상황, <창선감의록>의 화진과 남채봉의 고난 상황 등에서 유형적으로 <숙향전>과 유사한 암시와 실현의 서사 구성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숙향전>은 인물이 꿈이나 초현실적 세계의 암시를 그대로 따르지만, 이들 작품에서는 인간이 초현실적 존재가 말하는 암시를 의문스럽게 생각하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초현실적 존재의 예언이 현실화되면 인물은 초현실적 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이들 작품에는 <숙향전>만큼 이 암시와 실현의 구성이 빈번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점은 <숙향전>이 여타의 어떤 소설보다 초현실의 원리가 인간과 근접해 있으며 이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힘임을 독자가 믿고 작품 속에 몰입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첨가적 삽화 구성인 이선의 이계 여행은 황후의 병을 고치기 위해 떠나는 구약 여행으로 고전소설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계 여행의 전형이다. 천체를 지나서 신선계로 들어간다는 이계 공간에 대한 이러한 상상력은 15·16세기 몽유록계 전기소설의 이계 여행담과 그 발상이 닿아있다. 몽유록계 전기소설의 이계 여행에서 몽유자가 신선을 만나서 한담을 나누거나, 역사적 인물을 만나서 현실의 문제를 토론하거나 비판하는 경우와 <숙향전>의 이계 여행에서 이선과 신선의 만남은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많다. 15세기 <금오신화>의 <용궁부연록>이나 <남염부주지>나 16세기 <기재기이>의 <안병몽유록> <최생우진기>의 이계 여행담은 이선의 이계 여행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들 작품이 전면적으로 이계 여행을 서사화하고 있다면 <숙향전>은 이선의 구약 여행에서만 이러한 장면이 첨가되어 있다. 그래서 몽유록계

전기소설에서 독자가 느끼는 초현실계에 대한 경이로움은 <숙향전>의 후반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숙향전>은 여러 고전소설의 하위 갈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초현실적 사건의 여러 양상을 두루 내포하고 있다. <숙향전>은 신화나 전설, 민담의 상상력뿐만 아니라 다른 갈래의 고전소설에서 활용되는 환상적 상상력을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환상적 이야기를 주조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숙향전>은 이전의 어떤 소설의 하위 갈래 자체를 이어왔거나, 혹은 <숙향전>류의 새로운 하위 갈래의 작품군을 형성시키지 못했다. 갈래가 작품의 구조와 의미, 연원과 같은 측면에서 유사한 관계로 묶일 수 있는 것이라면 <숙향전>과 유사한 갈래로 묶을 수 있는 작품은 많지 않다. 그만큼 <숙향전>의 작품세계는 독특하다.

그러나 <숙향전>의 환상성은 많은 고전소설과 친연성을 지닌다. <숙향전>의 환상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독서의 재미를 선사한다. <숙향전>은 고전소설의 허구적 상상력의 보고(寶庫)가 되는 환상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숙향전>의 환상성은 앞 시대의 서사문화와 고전소설에서 그 연원을 이어왔고 <숙향전> 이후의 고전소설에 영향을 주며, 고전소설의 상상력의 색인을 더 풍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IV. 맺음말

본고는 <숙향전>의 환상성의 창출양상과 그 의미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 논문이다. 우리 고전소설 중에서 <숙향전>만큼 초현실적 사건의 구성이 전면화된 소설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숙향전>의 환상성은 한편으로 독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요소로 작용할 소지도 있겠지만 오히려 <숙향전>의 환상성은 텍스트 내의 서사세계에 개연성과 유

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숙향전>의 서술방식이 창출하는 환상성의 다채로운 성격 때문일 것이다. <숙향전>의 환상성이야말로 독자가 <숙향전>을 읽게 하는 흡인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간혹 초현실적인 세계에 기반을 두고 창작된 많은 고전소설을 폄하하여 고전소설의 환상성은 극복되어야 할 것쯤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숙향전>의 환상성은 고전소설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실성과 대별되는 환상성은 당대 문학 향유층의 상상력의 지평을 보여주는 것이며, 삶의 문제를 탐구하는 또 다른 서사적 유형의 모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 환상성(The fantastic), 심리적 원근감(psychological distance), 인물의 인식 과정(recognition process of characters), 암시와 실현의 반복적 구성(repetitive construction of allusions and realizations), 첨가적 삽화(additional episodes)

참고문헌

- 김진영, 차충환 교주, 『숙향전』, 민속원, 2001.
- 김문희, 「고전소설의 환상성의 양상과 인식적 기반」,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pp.6-28.
- 김응환, 「숙향전의 도교사상적 고찰」, 한양대 석사논문, 1983, pp.19-41.
- 성현경, 「숙향전론」,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5, pp.135-184.
- 신재홍, 「숙향전의 미적특질」, 『다국어수봉박사 정년기념 고소설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pp.511-545.
-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 박사논문, 1994.

pp.175-280.

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과정 시론」,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83, pp.68-87.

조용호,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7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pp.242-273.

차충환, 『숙향전 연구』, 월인, 1999, pp.9-276.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연구』, 월인, 1999, pp.250-264.

<Abstract>

The Creation Aspect and the Meaning of
the Fantastic in “Sukhyangjeon”

Kim, Mun-He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reation aspect and the meaning of the fantastic in “Sukhyangjeon.”

The characters and the narrator in “Sukhyangjeon” take on the description method that assists the reader to actively accommodate the surreal events. The fantastic found in “Sukhyangjeon” originates from the description intension to close the mental gap between the reader and the object world and to allow the reader to feel more intimate with the object world by accommodating the surreal principles. Such description intension is evident first in the recognition process of the characters, second in the repetitive construction of allusions and realizations, and third in the additional episodes.

First, the most emphasized reaction of the characters during the character recognition process is eccentricity. The characters in “Sukhyangjeon” feel eccentric about the object world, and then subsequently accept and accommodate such eccentricity. Such recognition process of the characters provides the reader with a reaction. In other words, while the characters go through many thoughts about how they should react to the object world, the reader begin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object world and prepare himself or herself to enter the virtual world. The fantastic in “Sukhyangjeon” is created as the reader participates in the recognition

process of the characters.

Second, the repetitive construction of allusions and realizations in “Sukhyangjeon” creates the fantastic in the reader by closing the gap between the reader and the object world. Through the repetitive construction of allusions and realizations, the reader learns the narrative rules throughout “Sukhyangjeon” and it becomes easier for the reader to participate in the narrated virtual world. The fantastic in “Sukhyangjeon” is set in full motion as the repetitive construction of allusions and realizations, which was designed to regulate the psychological distance of the reader at the plot level, acts as a strong driving force that bids the reader into the virtual world.

Third, the fantastic created through the additional episodes, unlike the previous two aspects, is created from the mental distance between the reader and the object world. As the main character embarks on the journey of another world, she comes in a direction contact with the strange world. As the heterogeneousness of the world witnessed by the character is greatly emphasized, it becomes harder for the reader to get absorbed into the world but rather stay at a distance and look at the object world as an observer. Through the character’s journey in the different world, the reader is assisted to feel the wonderment and engage in the journey itself.

The fantastic in “Sukhyangjeon” acts as an element that enriches the index of imagination in classical novels.

김문희

121-826 서울시 마포구 망원2동 471-37, 201호

서강대학교 국문학과 강사

전화: (02)322-4283 / 016-714-3389

e-mail: kimmuni21@hanmail.net

이 논문은	2005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12월	30일	간행함